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심의 자비를 깨달을 때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진다 [누가복음 17:11-19]

설교자: 마티아스 샷트 (Matthias Schat)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15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오늘 설교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님으로 알아봤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에 더해,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채워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두 무리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깨끗케 하심의 자비를 깨달을 때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진다.' 는 설교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 긍휼을 구한 열 명의 사람들- 오늘 설교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분의 마음은 그의 최종 목적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부어주시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예수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곳엔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사회와 예배의 자리 모두로부터 제외 당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문둥병과 그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한 우리 마음 속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의 긍휼로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하지만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 자비의 행위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기적적인 치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임을 보이신 것이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땐 각자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본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 그리고 주님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찬양을 드린 한 명의 사람-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 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왕이심을 깨닫고 돌아온 것을 봅니다. 예수님 손으로부터 나와 자신에게 전해진 치유의 경험과 지식이 그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에게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이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들을 잘 활용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장로들과 집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그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와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보고, 우리의 삶이 구세주 주님께 감사와 예배드림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